



서가풍경

인문과 예술이 서로 혼용하는 공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형국 교수의 서가

책장이 앞뒤로 트인 것처럼, 그 서가의 공간은 상하좌우로 끊임없이 외부와 투입한다. 방 안으로 멀리 북한산 보현봉 자락이 스며드는 것은 물론, 여기저기 아래위층의 공간을 내려다보고 올려다볼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다. 그 독특한 구조에 끌린다면, 어디 한 번 주인이 말하는 내력을 들어볼 만하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이자 한국미래학회 회장인 김형국 교수(58)가 머무는 서재다. '가보니 책이 별로 없더라고 적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이사이 평창동 산중턱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환하다. 실내를 하얀색으로 칠했기 때문만은 아닌 듯. 서가 뒷편으로 서가 크기에 육박하는 대형스피커와 음악시디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 광경이 문득 '화가 장욱진과는 어떤 인연이셨습니까?' 라는 물음을 이끈다.

"그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죠. 이제까지 전공과 관련해 책을 많이 펴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까지 읽힐만한 책은 역시 장욱진에 대해 쓴 다섯 권 정도의 책입니다."

역시 서가를 살펴도 《한국공간 구조론》, 《땅과 한국인의 삶》 등 김교수가 쓴 책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앙리 마티즈라든가, 유영국이라든가, 장욱진 같은 이름을 볼 수 있을 뿐. 사회학과 도시계획을 전공한 그에게 미술이란, 음악이란 무엇일까?

"예술이란 인간정신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예술은 신과 동물의 중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란 신의 경지를 엿보는 사람이죠. 인문학자라면 예술을 멀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랄 때 분위기도 그랬구요."

서가에 공존하는 미술·음악서적을 가리키며 김교수는 '크로스오버, 퓨전, 하이브리드'라 일컫는 듯. 한 인문주의자의 서재를 중심으로 아래위층이, 내부와 외부가, 근경과 원경이 서로 뒤섞이면서 어느 개인 날 오전을 만드는 것처럼. 무릇 서가는 주인을 닮는 법이다.

- 김연수 기자

